

사설

‘한국의 불화’는 대작불사

전국의 사찰에 소장된 불화를 집대성한 <한국의 불화> 대작불사가 착각 진행되고 있다. 성보문화재단이 지난 90년부터 작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해까지 16권을 세상에 내놓았다. 올해 다시 4권을 보태 1차분 20권의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2005년까지 매년 4권씩 발행, 모두 40권으로 대미를 장식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책’의 형태이지만 계속 5천여 점의 불화가 집대성된 또 하나의 ‘성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책과 도록은 주로 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불화>는 제작 연대가 조선시대 말까지인 모든 불화를 망라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미술문화를 집대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평가는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화는 불상에 버금가는 비중을 지닌 중요한 신앙의 상징물이다. 또 우리나라 불교의 신앙 내용과 형태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회화사(繪畵史)에 있어서도 불화는 그 표현 기법과 채색의 사용법이 독특해 연구의 대상이며,

일반 회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고려불화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불화는 내구성이 뛰어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크다. 오래 전부터 문화재 도굴범들의 표적이 되었어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게 그 동안의 실정이었다. 훼손되어도 원형을 몰라 복원도 쉽지 않았다. <한국의 불화> 간행은 신앙의 상징인 불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지만, 성보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 사찰의 전각에 모셔진 불화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연유에 의해 조성됐고, 어떤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당연히 문화재도난범들의 표적이 되어도 대책 마련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불화> 대작불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1권 제작에 들어가는 1억원의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촬영 장비를 산에서 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고를 더 해야 한다. 불자들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 같이 힘을 보태달라 부탁한다.

대불청의 재도약 기대한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가 10월 22일 21대 중앙회장으로 김규범 씨를 선출했다. 김규범회장의 이력을 보면 마산불교청년회 봉은사 청년회 등 일찍부터 청년불교 활동을 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리더십과 대불청의 향후 활동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한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 청년들의 눈빛을 보라는 말이 있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불교의 미래는 청년불자들의 어깨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년이야말로 희망이며 도전이며 개혁의 상징이다. 그러나 한국 청년 불교를 대표한다는 대불청은 언제부터인가 그 조직이나 활동면에서 여전같지 않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불청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 민중 운동운동을 비롯한 불교선각자들의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과 조국 광복이라는 취지로 1920년 창립되어 8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광복 후에도 격변의 시기마다 불교대중화와 불교개혁의 가치를 높이 내걸어 왔으나 수년전부터 침체의 늪에 빠져 불교계에서 그 역할조차 미미해져 갔으며 심지어는 종단사태에 휘말려 곤욕을 치

르기도 했다.

김규범 새 회장은 실천과제로 전국조직 정비와 전국지부 지회 네트워크 형성, 대불청 부설 청년정책연구소 설립, 만해대학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시효과적인 사업보다는 내실있고 능력이 되는 사업부터 차근차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각 지부와 지회의 활성화가 선행과제다. 회원들의 동참없이 머리만 있는 단체의 미래는 밝힐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불청이 힘을 가지려면 자립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회원들 대부분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마음만 있다면 재정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다고 본다. 종단이나 사찰에 기대지 않고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불교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이다. 이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를 주도하며 젊음이다운 패기와 순수한 열정, 과감한 실천력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야 한국 불교도 활력이 살아나고, 재가불교 지성불교가 꽃피워진다. 새 회장 선출을 계기로 대불청이 침체에서 벗어나 만해정신으로 다시금 무장하고 발심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으로 세계 되기를 기원해 본다.

신라·백제불교 초전지 성역화

구미시 모래원·도리사에 전통사찰·기념관 건립
영광군 법성포·불갑사 일대 진입로·존자상 추진
경남도 가야불교 유적지 연결 관광벨트 개발

신라·백제불교의 초전 범용 성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나란히 성역화 된다. 또 한국불교 남방전래설의 무대인 가야불교 유적도 관광루트로 개발돼, 한국 불교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포교에도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경북 구미시는 백용성초사유 혼실현후원회와 함께 아도화상 이 놀지왕 원년(417년) 신라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모래원 일대와 신라불교 최초 사찰인 도리사 성역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까지 총 43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모래원 성역화사업은 모래원 일대 부지 1만6500평에 연면적 641평 규모로 전통사찰, 선원, 기념관, 불교교육관 등 20동의 건물을 건립한다는 것. 이

중 신라불교 초전지 기념관(부지 430평, 연면적 33평)은 이미 지난해 12월 7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불교교육관은 모래원 주변 폐교인 송도초등학교를 임대해 조성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또 아도화상이 창건한 도리사 정비를 위해 극락전 해체 보수, 아도화상 사적비 정비를 마쳤으며 설법전 건립 지원, 진입로 도로 확장, 화장실

등 시설확충 지원에도 나섰다.

직지사 주지 범성스님은 “모래원 등 신라불교초전지 성역화사업이 완료되면 불교문화재의 보존관리는 물론 유물 전시와 교육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불교 홍보 및 포교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침류왕 원년(384년)에 인도 마라타 스님이 백제에 불교를 전하면서 창건한 불갑사가 있는 전남 영광 법성포일대의 성역화사업도 지난 4월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운사 등이 참여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됨에 따라 본격화 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법성면 진내리 일대 1만3천여

평에 약95억원을 들여 오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시행초기 기독교계가 특종종교 사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 한동안 마찰을 빚어왔으나 현재 2차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토목공사 기공식과 마라타탑 건립이 내년초에 추진될 계획이다.

추진위는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만다라광장 등 기념시설물, 부용루 수경관 등 건축물 건립과는 별도로 마라타탑 존자상 및 좌대 건립을 위한 민간차원의 모금운동도 펼치고 있다.

한편 가야 김수로왕 7년(48년) 인도 아유타국에서 건너온 허황후와 그녀의 오빠 장유화상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했다는 남방불교 전래설의 무대인 신라 동림사-은하사-장유암-칠불암도 경남도에 의해 가야문화역사 관광벨트로 조성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대만평 박구원

문화재 찾기 끝까지 추적해서

조계종 내년예산 감축

특별회계 10억 줄여 편성

조계종 기획실이 10월 26일 발표한 ‘불기 2545년 중앙종무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 개요’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157억43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0.1% 줄여 편성했다. 특별회계도 119억4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억1700만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관 리워 중앙종회 중앙승가대전출금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의 예산을 동결 또는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해 중앙종회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기획실은 초고속기초 속에서도 남북불교 교류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에 1억2000만원, 중앙종회에 3400만원, 중앙승가대 전출금 25억원을 증액 배정했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올해와

같은 34억6700만원, 19억6600만원으로 편성했다.

조계종이 초고속 기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내년도 사찰 수입의 증가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승가대 이전 불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분담·직영 사찰의 분담금에 상향조정했다.

기획실장 성해스님은 “중앙승가대 이전 불사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특별분담·직영 사찰의 분담금을 상향조정하고, 부족한 재원은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을 동결하여 이전 불사의 전출금을 최대한 증액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근래 들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10월 24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설명하고 교구본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중앙승가대 연내 이전”

정대스님 “11월 준공검사 후 입주”

중앙승가대의 김포화사 이전이 올해안에 추진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0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말 안에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화사로 옮긴 이후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단의 3대 사업 중의 하나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중앙승가대 김포화사 이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총무원 청사 신축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히고 “그러나 새 청사를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화사 이전과 관련, 중앙승가대 이사장 정대스님과 시공사인 품림건설은 10월 27일 290억원으로 공사비를 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미지급 공사비 198억원을 10월 말 83억원, 내년

에 65억, 2002년에 50억원 등 세 차례로 나눠 공임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21세기 포교방향 세미나

조계종 포교승가회(회장 종후스님)는 2일 중앙승가대 정진관1층 강당에서 ‘21세기 포교방향 및 포교방법론 연구’를 주제로 포교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포교세미나는 ‘21세기 정보화사회의 포교방법론’에 대해 종선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기조연설하고, ‘포교활성화를 위한 신도조직화 연구 방안(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김원우 기자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해에 이어 노스님과 노인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벌입니다. 가천의대 동인전 김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어깨·손가락)에 대해 이수한 원장과 담당 전문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불교 복지향상을 발원하는 이번 불자 의료지원사업에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규모: 6~8명 정도
- ◆지원 대상: 노스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자
- ◆지원 내용: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경상 심하게 절뚝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 ◆구비 서류: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략한 의료지원신청서(소정양식)
- ◆진료비 무료: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 ◆식대(1일 13,000원 안팎) 및 무통 주사비는 본인이 부담
- ◆접 수: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22-4162

주최: 현대불교신문사·동인전 김병원
후원: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이길래)

이 책을 열면 새 하늘이 열린다!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체험의 신세계가 열린다

해인의 비밀

1氣의 회로를 찾아라

최현규 지음
312쪽 8,000원 / 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전 3천/2천, 3천은 곧 출간됩니다.

해인(海印) (화엄경)의 ‘동인해인삼매증매人海印三昧中’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우주의 참모습이 그대로 물 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 외상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그르다는 <해인도>는 ‘심바라밀도’라고도 불리는데, 호풍원우呼風喚雨와 이산초애移山超海 -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며,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담긴 신비의 그림자라 전해진다. <격암유록>에는 ‘하늘 해인을 구하면 모두 극락에 들어간다求天海印 普入極樂’는 구절이 있다.

콘스승 이 책속의 실존인물로, 소년 시절 해인의 수수께끼에 의문을 품어 평생의 탐구와 수련 끝에 마침내 해인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신비를 깨닫는 氣의 회로를 열어 놀라운 도력으로 세상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콘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모종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다.

氣회로 해인의 깨달음, 강력한 힘으로 작게는 한 인간의 운명과 질병, 크게는 현실세계와 역사마저 좌우하는 氣의 ‘지도’, 氣회로의 놀라운 실체를 밝힌 이 책은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현상 등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해답을 공개한다.

호풍원우呼風喚雨 ‘비를 오게 했다’면 멈출 수도 있겠지요, 우주와 하나가 된 자신을 믿으세요. 콘스승의 말에 오순실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손바닥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먹을 쥐자 비가 거짓말처럼 멈춰져 있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 생사의 쪼갬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생현현의 사건들,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책의 마력 앞에서 당신은 삶이 통째로 바뀔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독자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신비의 ‘氣회로’ 수록!
‘콘스승’이 손수 마련한 ‘氣회로’를 통해 질병 치료와 氣제법,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길 원서빌딩, 책방 정신세계 경영문헌(02)737-8115
인양점(031)466-2200, 원주점(031)742-7540, 대전점(042)489-9390, 전주점(063)246-4888, 대구점(053)943-4824, 부산점(051)294-8545, 마산점(055)248-5599